

「P.E. 드락커」著

『絶斷의 時代』

Peter F. Drucker; *The Age of Discontinuity*, 1968

黃炳暉

I

本書는 美國 「뉴욕」大學 「드락커」教授의 주목되는 最近의 著書이다. 이 책은 經濟學, 經營學, 政治學, 社會問題, 技術, 知識등의 世界에 걸친 넓은 視野를 갖고 이론과 未來學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内容은 非連續性(discontinuity)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고 할 것이다. 非連續性이란, 連續性에 대치되는 말이다. 著者は 그 序文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未來에 대한豫想은 겨우 어제의 趨勢를 내일로 延長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連續的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있었던 일만을 計劃할 수 있고 數量化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連續的 趨勢는 重要하긴 하지만, 그것은 未來의一面을 보는데 불과하며 現實의 하나의 展望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정확한 量的豫測이라 할지라도 그 内容이 반드시 重要的 일을豫測해 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긴요한 것은 今日과는 다른 明日의 事實과 그 現象이 무엇을 意味하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非連續性의 관점을 強調하고 있다.

이처럼 著者は 數量的인 것과는 다른 것, 말하자면 質的인 것, 構造的인 것, 理解의 方式, 意義, 價值, 機會, 優先度와 같은 것에 思考體系의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미 成就된 事實과 앞으로 우리가 받을挑戰的 現象의 雙方에 의하여 엮어지는 「가까운 將來」의 姿態를 고찰하되, 그것은 非連續性의 관점에서 보아 經濟, 政府 및 社會의 意義와 構造를 근본적으로 變革시키고 있다는 것을 究明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實情을 보더라도 社會科學의 現象과 그 變化를 量的인 面에서만 考察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가령 經濟學에 있어서 所得이나 人口問題를 다를 때, 몇 年後에는 所得

이 몇 배로 될 것이라든가, 人口가 얼마나 增加될 것이라든가 하는 計數的 趨勢를 내놓음으로써 諭議를 終結짓는 폐단이 있는 듯 하다. 더우기 앞으로의 數年間도 아니고 20年이나 30年間, 또는 그 이상 半世紀에 걸친 長期間을 量的인 計數의 連續으로서만 고찰한다면 그 本質의 意義와 構造, 價值등을 올바르게 判斷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本書의 그와 같은 特徵으로 인하여 그 内容은 단순한 未來에 대한 趨勢를豫測하는 것이 아니고, 現在 및 過去의 事實을 直視, 分析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著者도 『來日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를 이 책에서 考論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에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점은 바로 未來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論爭點의 하나이며 斯學의 當面課題라고 看做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뿐더러 未來學이 一般에게는 비교적 새로운 學問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學問의 性格에 대한 認識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충분히 돼 있지 못한 데 폐단이 緣由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無意識的으로나마 量的 變化에 관한敘述을 받아 드림으로써 滿足하는 상태에 놓여 족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드락커」教授는 이 책을 통하여 現在 및 過去에 대한 事實의 展開와 分析에 치중하고 있으며, 한편 美國뿐만 아니라, 歐洲 및 日本등에 걸친 廣範한 對象을 잡고 있다. 藝術이나 人間의 精神的 生活의 領域에 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였지만 모든 社會科學分野, 그리고 技術 및 知識의 世界를 포함하여 卓越한 理論體系 밑에서 具體的인 事實을 자세히 分析하면서 未來를 展望하고, 그 變化의 質的 内容을 포착하고 있는 것은 놀라울만 하다. 사실 本書의 末尾에 있는 바와 같이 社會의 變化를 量的인 面에서만 본다면 모든 變化는 連續된 變化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일단 質的인 面에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수많은 斷層이 露呈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는 非連續的인 變化가 주목되며 『斷絕의 時代』가 나타나는 것이다.

II

이 책의 内容은 全 4 部 11 節로 구성되어 있다. 그 目次의 큰 줄기는 다음과 같다.

第1部 知識技術

1. 連續性의 終結
2. 「새로운 產業」의 誕生
3. 革命的「企業家」
4. 經濟政策의 新展開

第2部 世界經濟

5. 「世界의 흡평·센터」
6. 後進國의 生產性向上
7. 「뉴·에코노믹스」

第3部 組織社會

8. 新多元的 組織
9. 組織의 「매니지먼트」
10. 政府의 疾患
11. 組織體에 있어서의 個人的 自由

第4部 知識社會

12. 知識經濟
13. 知識社會의 勞動者
14. 「成績主義」의 終焉
15. 知識社會와 教育
16. 知識의 戰略
17. 知識은 未來를 만드는가?

이와 같은 차례에 따라 著者は 非連續的 變化的 主要한 것으로서 아래의 네 가지에 대하여 論述하고 있다.

(1) 새로운 技術의 出現이 重視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技術에 의하여 새로운 重要產業이 誕生하는 반면에 既存의 重要產業이나 大事業은 陳腐化되어 간다고 할 것이다. 過去半世紀 동안에 成長한 產業은 19世紀 中葉부터 後半에 걸쳐 이루어진 科學的 發見에 立脚한 것이며, 또 過去數十年間에 成長한 產業은 20世紀에 들어선 후 50年 내지 60年 사이에 發見된 知識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量子物理學, 原子 및 分子構造의 鮮明, 生化學, 心理學등이 그 예이다. 이제 앞으로 數十年間에 나타나는 技術은 過去50年間에 連續的으로 나타났었던 技術이나 產業보다는, 數年마다 새롭게 이루어진 新技術에 立脚하여 重要產業이 生成되었던 前世紀 後半의 數十年間의 상태에 더욱 흡사하리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2) 世界經濟도 크게 變化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아직도 經濟政策 및 經濟理論에 있어 말하자면 international economy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行動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個個國家가 하나의 單位이며, 言語 法律 文化的 傳統등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

지로 經濟도 기본적으로는 다르며, 그것이 國際貿易에 의하여 相互關聯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world economy 가 誕生되어가고 있다. 共通된 情報는 同一 한 經濟的 慾求, 刺戟, 그리고 需要를 誘發시키고 있으며 國境, 言語, 政府의 理念등을 초월하고자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世界는 「하나의 市場」이 되고 地球的 規模에 있어서의 「쇼핑·센터」(shopping center)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른바 世界經濟는 그에 相應하는 經濟的 制度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유일하고 중요한例外로서 「多國籍企業」이 있다.)

世界經濟는 아직도 충분한 基盤을 닦고 있지 못하다. 新興國이 先進國의 系列에 들어가는데 失敗함으로써 富裕國(그것은 대체로 白色人種의 國家들이다)과 後進國(대개 有色人種의 國家들이다) 사이에 斷層이 생기고 서로 간에 複雜한 問題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數年間에 심히 革新的인 變化가 일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發展에 대한 與件은 크게 달라졌는데, 우리는 지난 19世紀에 發揮된 풍요한 發展能力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 存在가 작아진 階級鬭爭에 관한豫言이 1次大戰의 時代에 있어 자랑스러운 業績이었다는 것을 20世紀는 實證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現代의 唯一한 戰爭은 階級間의 그것이 아니고, 人種間의 戰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오늘날 社會的 및 經濟的生活을 形成하는 政治的 環境은 平常한 速度로 變貌하고 있다. 또한 現代의 社會와 政治는 多元的인 樣相을 示顯하고 있는 것이다. 個個의 어떠한 중요한 社會的 問題도 그 解決은 永續性있게 組織化되며 管理者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는 큰 組織體가 해결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아직도 18世紀의in 自由主義理論에 따르는 個人主義의in 前提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現實의in 行動을 실제로 支配하고 있는 것은 어느 面에서 組織化된 것이며 中央集權의in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組織化의 傾向속에서도 점차 하나의 轉機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그러한 組織體중에서 급속히 成長한 最大的 組織인 政府에 대하여 批判이 생기고 있으며 餘他의 組織體에 대해서도 다름이 없다. 가령 「가톨릭」敎會나 큰 大學에 있어서도 反撥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서나 젊은 世代들은 모든 既成組織體에 대하여 敵意를 갖고 이를 否定하려는 態度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충분한 理解나 思慮 없이 이미 새로운 社會·政治의 現實을 構築하였다. 이 組織體에 의한 새로운 多元的 社會는 상당한 政治的 哲學的, 그리고 精神的 挑戰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제일 중요한 變化는 「知識」에 관한 것이다. 知識은 過去 10年間에 가장 核心이 되

는 資本, 또는 費用項目이나 經濟的資源이 되었다. 말하자면 勞動力과 作業, 教授하는 것과 學習하는 것, 나가서 知識의 本質과 그 使用方式을 變化시켰다. 이와 같은 變化는 새롭히 權力者나 知識人의 責任에 관하여 問題들을 提起시키고 있는 것이다.

III

이 책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經濟學 및 經營學뿐만 아니라, 政治學, 社會問題, 技術知識等 廣範한 對象分野에 걸친 未來學에 관한 大著인바, 그중 經營學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第3部「組織社會」(a society of organizations)에 관한 内容이 다른 部分보다 더욱 밀접한 聯關係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部分에 대하여 다소 자세한 紹介를 여기서 하고자 한다.

우선 著者 「드락커」教授는 現代社會는 組織中心의 社會라는 것이 特徵이라고 말하고 있다. J. Locke, Thomas Hobbes 등의 個人中心이나 家族單位를 기초로 한 近代社會理論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活動은 組織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組織體에는 政府, 大企業, 大學, 勞動組合, 病院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날 그 施設 및 規模는 급격히 伸張되어가고 있다. 가령 1914年以前에는 5,000名이상의 學生數를 가진 大學은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20,000名以上的 學生을 가진 大學은 中規模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今日의 美國 YMCA의豫算규모는 2億弗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次大戰前의 하나의 큰 州의豫算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現代의 組織體는 量的 規模가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施設 및 裝備도 강화되었으며, 따라서 그 活動內容은 複雜化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組織體의 特質은 첫째로 소위 多元的組織(the pluralism)이고 主要組織體는 그自體機能을 他組織體에 移讓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組織體는 相互依存關係에 있고 共存·共同活動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말한 機能移讓의 예로서는 2次大戰前에는 美國에 있어서 軍需生產은 政府(工廠)가 獨占했었으나 2次大戰後는 民間企業의 契約者로 부터 供給받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다. 또한 組織의 相互依存關係에 관해서는 허다한 事例가 있겠으나 大企業이 教育分野에 進出하는 現象이 현저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예컨대 Westinghouse 와 I.B.M. 會社는 Palo Alto에서 教育制度에 관계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그와 같은 組織의 本質은 「知識의 組織」(knowledge organization)이라는 점에 있다고 한다. 지난날 Ford의 T-Model 自動車를 製作할 때를 예로 들자면 무엇이든지 잘 알

고 있는 少數의 「보스」가 뭐든지 命令하고 未熟練된 單純勞動者는 그 命令에 服從하여 일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組織構造는 이미 過去의 遺物에 지나지 않으며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組織內의 各者는 熟練된 專門人으로서 登場하게 된다. 그와 같은 組織의 特質에 비추어 「知識의 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組織管理에 있어서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點이 있다는 것이다. 그 첫째로 지적된 것은 多數 人間이 集合하여 組織體를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個人的 必要나 慾望과 組織의 目的間에는 어떠한 不一致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個人은 固有한 知識에 대하여 權威를 認定받아야 하는 반면에 組織은 不可侵의 意思決定의 權威를 확립해야 하므로 그간에 不一致가 생기게 마련이다. 둘째로 組織의 成果測定은 容易하지 않다는 것이다. 經營學에서 論議되어 온 「效率性」(efficiency)과 「有效性」(effectiveness)의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 「效率性」의 接近方法은 組織management에 있어 適切한 順序 및 經過를 重要視하지만, 「有效性」의 接近方法에 있어서는 그 보다도 나타난 結果에 置重하게 된다. 前者에서는 努力과 秩序가 존중되며 人間은 組織속의 人間으로서 考察되는데 대하여 後者는 成果와 活動中心이며 指導者나 幹部는 組織밖에 存在한다고 볼 수 있다. 著者は 명확하게 管理의 效率性보다 有効性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그와 같은 指導者나 幹부는 바로 知識勞動者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들에게 많은 示唆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附記 :

著者「드락커」教授는 日本에 대하여 至大한 關心을 표명하여 왔다. 本書에서도 많은 部分에서 日本에 관하여 깊이 分析, 論及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아직도 거의 關心이 없는 듯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今年 11月에 日本 東京에서 열리는 CIOS XV International Management Congress에 參席한 후 韓國經濟人聯合會에서 訪韓ト록 招請하였으나 本人 事情이라는 理由로 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으로 筆者は 原書를 豫定대로入手치 못하였으므로 本稿는 부득이 日譯版을 利用하였다는 것을 添記하여 둔다.